

크리스마스의 깜짝 놀랄 계시(啓示)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 탄생에 관해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의 메시지에서 천사들이 놀란 것보다 더 놀라고 있는 우리는 헬라이어 문법을 갖고 시작하자. “두려워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0-11) 여기서 핵심 단어로 나온 ‘그리스도’ 와 ‘주’ 는 주격(nominative)으로 동등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 단어인 ‘주’ 가 소유격(genitive)으로 기대된 것이 놀랍다. 그럴 경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주님의 그리스도(Lord’s Christ (Messiah)시라” 는 뜻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가 그의 탄생을 예고할 때 소유격으로부터 주격으로 고지함으로, 나신 아기가 메시야로 선언되었다. 주님의 기쁨부음 받은 자 그러나 기쁨부음 받은 메시야 곧 주님이시다. 이 말씀은 그의 기능 뿐아니라 성품도 나타낸다. 나신 아기가 하나님이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Jesus is Jehovah)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말은 초대교회 최초의 신조(신경)요,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 10:9)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Yahweh 대신 Lord로 번역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었다. 물론 신약에서 주라는 단어가 모두 하나님을 말한 것은 아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어른, 뼈어난 랍비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신론을 배격하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선언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을 때 다윗이 그를 주라 어찌 칭하느냐 반문하셨다.(마 22:41이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1)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다.

주와 구세주

(Lord and Saviour)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그가 구세주라는 말이다. 악한 권세, 죄, 사탄, 죽음,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라 했다. 이분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고 내용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아기로 나신 그 분이 주님이신가?

(Is he The Lord?)

예수님은 구세주 되시기 위해 주님이 되셔야 한다. 그 분이 참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분께 진정 헌신하고 있는가? 그 분이 주님이시라면 사고와 생각의 주가 되셔야 한다. 마음, 의지, 도덕, 시간, 계획의 표준이 되셔야 하고 그 분께 순종해야 한다. 자기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와 생활과 국가의 주가 되셔야 한다. 그 분은 왕중왕, 주의주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신가? 당신은 그 분께 충분히 헌신하고 있는가? 성탄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듯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분께 헌신과 의지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소원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23호] 2018년 12월 22일 발매-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Dong Woo Par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Luke 2:8-14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Good News of Great Joy”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중일백순미(타기노동자), 필리온,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인자가 오실 때에 ”

■ 마 25:31-46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최후의 심판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세상의 끝 날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힘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첫째로, 양과 염소 비유는 재림 예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때문에 본문의 비유는 구원의 기준이 행위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의 평가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에, 주님의 판결에 의해 결정 될 것 입니다. 재림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은 모든 민족을 구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지만 저녁에 짐을 재우기 위해서 우리로 들여보낼 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짐을 재웁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의인과 악인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 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의인은 주님의 오른쪽에, 악인은 그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45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리고 목마를 때, 할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나라의 임금이라고 밝히지 않고, 굶주린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할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웃의 고통은 주님의 고통이요, 나의 고통으로 알고 자극히 작은 자로 있는 이웃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야가/ 위대한 성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 또 다시 불현듯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게 될 위험과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정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사회적 공신력을 크게 상실하여 쇠퇴일로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인에 대한 불신감, 곧 ‘세상의 소금과 빛’ 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부재 내지는 빈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여 말씀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원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영접하였습니다.

맺는 말

세상의 어두움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왔으며, 거듭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죄와 소망이 끊어진 절망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주셨고, 거듭난 생명의 빛을 받도록 하였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며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사명자입니다. 사도바울은 순교 직전 그의 일생을 돌아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딤후 4:7-8)고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산 생활이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 인자가 오실 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명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이강진 장로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인 도 자
찬 송	다 함 께
기 도	백승갑 집사
성 경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네 믿은 대로 될지이다"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홍정란 권사
성 경 ... 삼상 27:1-28:2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영안박수강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는 교육부서 성탄축하 특별 행사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공연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수요 I 부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입

-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당회 / 26일(수) 수요일부 예배 후 가이오실
- 16교구 연합모임 / 28일(금) 오후 6시30분 휘모리
- 의료선교회 총회 / 29일(토) 오후 5시 104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성탄절기예배 안내 / 이번 주기는 성탄절 기간으로 모입니다.
성탄새벽예배 : 25일(화) 오전 5시에 드립니다.
성탄축하감사예배 : 25일(화) 오전 11시에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 특별 제직회 / 30일(주) 찬양예배 후 101호에서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 승인을 위한 제직회로 모입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경현구(치과), 김동건(치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5.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장 레</p> <p>1.故 유임호 성도(16교구 정운순 집사의 모친) / 15일(토) 별세, 18일(화) 발인 2.故 최난수 권사(2교구 오택길 집사의 모친, 김미영 권사의 시모) / 20일(목) 별세, 22일(토) 천국환송예배</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80명	295명	189명	1,364명	14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1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 16일	헌 금	29,276,900	
	특별예배비		72,290
	교회학교운영비		3,297,100
	행 사 비		181,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118,930
	통 신 비		655,880
	수도광열비		290,000
	차량유지비		1,459,150
	도서인쇄비		30,000
	사무용품비		9,600
	소 모 품 비		224,260
	수선유지비		128,500
	식당운영비		779,570
	합 계	29,276,900	7,496,280